

# 김기현·홍준표, 이재명에 단식 중단 요청...“건강 챙겨라”

### 김기현 “이재명, 단식 당장 중단하고 여야 대표회담하자” 홍준표 “밥투정이라 한 말 사과...중단하고 건강 챙겨야”

국민의힘이 17일째 단식농성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기현 대표는 16일 페이스북에 “저는 며칠 전 이재명 대표께 단식 중단을 요청한 바 있다”며 “이 대표께 단식 중단을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드립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현안을 점검하고 민생을 챙겨야 하는 정기국회가 시작되어 본격 가동되고 있다”며 “이 대표께서 건강을 회복하시는 대로 즉시 여야 대표회담을 열고 민생에 대한 치열한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정치는 정파가 다르고 이견이 있더라도 협의하고 조율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기에 여야 당 대표 간 대화의 문은 늘 열려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저는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언제 어디서든 이 대표와 만나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있다”며 “최근 국회에서 안타까운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명절을 앞두고 우

리 정치가 국민께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은 리더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 대표께서 건강이 악화돼 회복에 큰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도록 이제 단식을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요청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 대표를 향해 “이제 단식을 중단하고 건강을 챙기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단식 초기 철저히 어린애 밥투정 같다고 했던 말을 사과드린다”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목숨 건 단식을 조롱한건 잘못”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외무물”이라고 했다. 신외무물은 건강이 가장 소중하다는 말이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 4일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에게 “반찬 투정하며 밥을 안 먹겠다고 투정부리는 어린애처럼 나라 일 하는 건 아니다”라며 “단식 투쟁은 1970~80년대 저항수단이 없을때 하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김여령 대변인도 논평에서 “오늘로 17일 차에 접어든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대해 국민의 힘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중단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며 “김기현 대표도 이 대표가 단식을 중단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즉시 민생에 대한 치열한 논의를 하자는 여야 대표회담을 제안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지금은 이 대표의 건강 악화와 관련한 대책 논의를 위해 단식 중단을 당론으로 정하는 의원총회를 열 때가 아니다”라며 “중차대한 정기국회가 시작되었고,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도 앞둔 시점에서 민생에 집중해도 모자란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떠한 경우에도 건강과 생명은 소중하다”며 “그러나 사법리스크를 위한 방탄, 당내 계파 갈등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전략, 민주당을 향한 따가운 시선을 돌려놓기 위한 저항의 단식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본인의 범죄에 대해서 떳떳하다면 본질을 호도해 생명을 담보하지 말고 즉각 단식을 중단하라”며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중단 여론전 일환으로 미국을 방문한 민주당 이수진 의원까지 나서 고든 존슨 뉴저지 주상원의원을 만나 이 대표의 단식을 언급하는 모습도 민망하다”고 했다.



또 “이 대표는 연방 상원과는 관련도 없는 지방의회 의원을 만나 연방 정부 차원의 입장 요청에 더해 핵폐기물이 그려진 포스터까지 들고 사진 촬영을 요청했지만 존슨 의원이 끝내 사양했다. 이런 망신이 어디 있느냐”며 “정치는 한 발 나아가야 한다. 이 대표가 단식을 하는 과정에서 국민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

면, 단식을 중단하고 제 할 일을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31일부터 정부에 ▲대국민 사과와 국정방향 전환 ▲오염수 방류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국정쇄신과 개각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 중이다.

서선욱기자

## 민주 “검찰 회기중 영장 청구, 정당성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회기 중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두고 “비열한 정치공작”이라고 비판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오는 18일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며 “아무런 증거 없이 오직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를 위해 권한을 남용하는 검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검찰은 지난 1년 반 동안 검사 수십 명, 수사관 수백여 명을 동원해 이 대표와 그 주변을 먼지 털 듯이 탈탈 털었다”며 “그러나 범죄 혐의자들의 뒤바뀐 진술 외에는 제대로 된 증거 하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

했다. 이어 “오랜 기간 수사에도 증거조차 제시하지 못했던 검찰이 끝내 비회기 중 영장 청구마저 거부한 채 정기국회 회기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검은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며 “야당을 분열시키고 정기국회 본연의 역할인 정부 감시의 동력을 떨어뜨리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또 이 대표는 법에 정해진 구속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수백번의 압수수색으로 인멸할 증거가 없는 점, 제1야당의 대표라 도주 우려도 없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박 대변인은 “납득할 수 없는 시기에,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납득할 수 없는 방식의 영장 청구를 일삼는 것은 야당에 대한 검찰의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검찰은 자신 있다면 정기국회가 마무리된 이후 비회기 기간에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며 “정기국회 중 영장 청구라는 정치공작을 저지른다면 검찰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이슬비기자

## 민주 “윤 정부, 오염수 방류 입장 안 내...국제기구에 우려 전달”

### 오염수 투기 저지 대책위, 국제해사기구 방문



더불어민주당이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를 앞두고 국제해사기구를 방문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국민적 우려를 전달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가 오는 10월 예정된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에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입장을 전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17일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는 대책위 소속 우원식 의원, 양이원영 의원, 송기호 정책기획본부장이 전달(현지시간) 영국 런던에 위치한 국제해사기구를 방문해 임기택 사무총장, 아르세뇨 에이 도민게즈 차기 사무총장 내정자를 면담했다고 밝혔다.

국제해사기구는 런던협약·의정서 사무국 역할을 하는 국제기구다. 대책위는 전달 면담 자리에 런던협약·의정서 업무를 담당하는 해양환경 실무 책임자와 범물국장도 함께 배석했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상임위원장을 맡은 우 의원이 일본 정부의 오염수 투기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3가지 우려사항을 전했다”고 했다. ▲오염수 장기간 투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 ▲대안 검토 없이 바다를 오염시키는 결정을 한 것에 대한 우려 ▲미래세대 모두의 자산인 바다에 대한 위협 등이다. 그러면서 “이 같은 우려가 오는 10월 열릴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논의되길 바란다”며 이재명 대표의 친서를 함께 전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책위는 “윤석열 정부가 오는 10월 총회를 앞두고 어떠한 입장도 서류로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서류 의견 제출 기한은 총회 시작으로부터 6주 전까지라 이미 마감됐다는 설명이다.

오유나기자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